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the Delayed Family Formation Phenomenon among the Never-married Professionals in Korea: A Qualitative Study with Focus Groups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 교수 어성연**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희금***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고선강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Assistant Professor: Auh, Seongyeon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essor: Cho, Hee-Keum

Dept. of Social Welfare, Sunshin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Koh, Sung-Kang

〈 목 차 〉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선행 연구의 고찰	V. 결론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uses qualitative data to examine the dynamics and barriers of the delayed family formation phenomenon among the never-married professionals in Korea. The data was drawn from focus groups of 14 never-married professionals aged 28 through 40. The investigation depicts several dimensions of the circumstances of never-married professionals that have not garnered much attention in the literature. This research

* 본 연구는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발간등록번호 11-1351000-000287-01)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한 것임.

** 주저자: 어성연 (sauh@cau.ac.kr)

*** 교신저자: 조희금 (hkcho@daegu.ac.kr)

provides initial evidence of critical influences within the socio-cultural contexts of the participants' dating behaviors as well as the willingness to marry. Two different realities, based on gender, were discovered: both male and female voluntarily delayed marriage to pursue their career, education and success. As both reached their career goals, however, male participants experienced a rise in their value as a marriage prospect whereas females experienced decreased value as a marriage prospect. Hence, neo-traditional familism was the dominant value among the participants, but it also functioned as a major barrier to family formation because in the present value system, female professionals, must still struggle with the dual burdens of work and family management.

Key Words : 만혼(delayed family formation), 결혼의향(willingness to marriage),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전문직 미혼남녀(never married professionals), 신전통적 가족주의(neo-traditional familism)

I.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5년 합계출산율 1.1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낮은 출산율은 국가 미래의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저출산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연구를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저출산과 관련이 깊은 사회현상 중의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여성미혼인구의 증가와 만혼현상이다(김두섭, 2007; 장혜경, 2007). 만혼 및 혼인 기피는 출산력을 약화시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한 단위인 가정의 역할 축소 및 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사회는 법적 혼인이 아닌 남녀의 동거에 의한 출산이나 혼외 출산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결혼의 지연이나 기피는 결혼에 의한 출산의 기회를 줄이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출산율

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결혼지연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초혼연령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24.8세, 2006년 27.8세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평균초혼연령 또한 1990년 27.8세, 2006년 30.9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혼연령 상승 추세는 여성의 연령대 별 출산율의 변화 양상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즉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이 20대 여성의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두섭, 2007).

김두섭(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기혼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23.6세였고, 1997년 결혼한 사람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였다. 여성의 경우 직업의 차이에 따른 초혼연령의 차이는 1997년 이전과 이후 모두 전문직, 준전문직 여성의 결혼연령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직업과 결혼지연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결혼에 의한 출산만이 용인되는 사회에서 미혼남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것은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고, 따라서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만혼, 결혼 기피의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하는 것이 선결과제를 알 수 있다. 2005년 센서스조사 분석 결과 우리나라 28세 이상 미혼 남녀를 직업군으로 분류했을 때, 전문직과 준전문직¹⁾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경우 28세 이상 미혼여성의 54.8%가 전문직과 준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 등에 가치를 부여하는 21세기 사회 환경의 변화는 직업분야의 전문화·세분화로 인한 많은 종류의 전문직을 출현시켰고, 이를 위한 교육 연한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초혼 연령의 증가추세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의무에서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의 결혼 규범의 변화는 만혼현상 혹은 자발적 비혼 현상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사회로 변화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만혼의 가능성을 가진 평균 초혼 연령 이상의 미혼남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직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 만혼을 선호하거나,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관심을 두었다. 즉 본 연구는 평균초혼 연령 이상의 미혼 성인을 만혼의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특히 이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직 종사자의 결혼에 관한 생각과 결혼을 미루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화적 특성이 이들 집단의 만혼현상을 이끌고 있는지, 이러한 만혼에 대한 선호는 자발적인 것인지 혹은 비자발적인 것인지, 전문직 집단의 특성에 기인한 결혼방해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의 대응정책의 관점에서 전문직 미혼남

녀의 만혼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언 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의 고찰

전문직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직 미혼남녀는 전반적인 결혼에 관한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한 하위집단으로서 연구되어 왔는데(김두섭, 2007; 김정석, 2006; 김경원·김태현, 2005; 장상수, 1999), 최근 들어 이들의 수적 증가와 함께 구매력 향상으로 인한 이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직 미혼 남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이소영·황선진, 2003)가 제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전문직 미혼남녀의 결혼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이 있는데, 20대 후반 및 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한 연구(이소영·황선진, 2003)에서는 최근 영상매체와 디지털 기술의 일상생활의 급속한 확대는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보다 자유롭게 추구하는 네오 싱글(Neo Single)족과 프리 인텔리전트(Free Intelligent)족 등과 같은 새로운 싱글족들의 출현과 이들이 가진 매우 강한 자아성취의 욕구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분석한 20대 후반 및 30대의 미혼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직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자신의 마음에 딱 드는 직장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동시에 직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의 선호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소영·황선진(2003)의 연구는 전문직 독신여성의 의류소비 스타일 분석을 연구 목적

1) 본 연구에서 '전문직, 준전문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분류한 것임

으로 하여 전문직 독신여성의 만혼현상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35세 이상의 독신 남녀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에서 김경원과 김태현(2005)은 출생순위에 따른 가치기준, 부모양육 태도의 영향 및 경제적 어려움의 극복 등을 독신의 개인적 요인으로 발견하였고, 일에 대한 투자의 성취감 그리고 생활의 편리함 등의 사회 및 환경적 요인으로 이들의 독신동기를 설명하였으나, 전문직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는 미혼의 증가 및 만혼현상의 원인은 첫째 자발적 독신의 증가(Paterson & Kim, 1991; Roper, 1990; Surra, 1992; 김두섭, 2007), 둘째 경제적 압박 및 직업 개발(Benokra, 1993; Shearer, 1990), 셋째 결혼 대상군의 감소로 인한 비자발적 독신의 증가(Banerjee, 1990; Goldman, Westoff & Hammerslough, 1984)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특히 결혼 대상군의 감소를 교환이론으로 설명한 선행연구들(Anderson, 1994; Benokraitis, 1993; Goldman et al., 1984; Mydans, 1988)이 있으며, 남녀가 선호하는 결혼 조건의 차이를 원인으로 제시한 연구들(Anderson, 1994; Bunk, Dijkstra, Fetchenhauer, & Kenrick, 2002; Ellis, 1992; Li & Kenrick, 2006; Maner, Rouby & Gonzaga, 2008; 김정석, 2006; 함인희, 2001)도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속에서 전문직 미혼 남녀의 결혼기피와 만혼의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발적 독신의 증가에 관한 Surra(1991)의 연구는 미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관심의 꾸준한 감소현상이 이어져 왔고 이는 미혼 남성들의 자발적 독신현상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미혼 남녀의 자발적 독신의 영향 변인으로 주변에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 및 비교우위감(예, 결혼해서 불행한 내 친구들보다 독신인 내가 더 행복하다)으로 인한 영향 등이 보고되었다(Paterson & Kim, 1991; Roper, 1990). 우리나라의 결과를 보면,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분석 결과 미혼 남성의 71.4%만이 결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49.2%만이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김두섭(2007)은 통계청의 1998년과 2006년 자료를 비교한 결과 결혼의 필수성 보다는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 요인인 경제적 압박은 미혼 남녀로 하여금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게 하거나 혹은 장시간의 근무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장시간의 근무는 미혼 남녀의 데이팅을 위한 시간의 부족 및 에너지의 고갈을 유발하여 이성교제 관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nokraitis, 1993). 일본의 경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의 근무는 1990년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평균 초혼 연령 및 미혼율을 나타내는 하나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Shearer, 1990). 이러한 장시간 근무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드물지 않은 현상임을 고려할 때, 이들 역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신체적 그리고 시간적 에너지 고갈로 인한 비자발적 만혼을 경험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셋째, 결혼대상군 감소 현상은 비자발적 만혼현상을 유발하였다. 대상군의 감소는 계층별 그리고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전문직 여성의 특성인 고학력 미혼 집단에서 두

2)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의하면 변호사, 의사, 재정전문가, 등의 전문직종의 경우 보통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예로 변호사의 경우 하루일과가 아침 9시정도 출근하여 저녁 10-11시께 퇴근한다고 소개하고 있고, 재정전문가 역시 혼자 수행하는 업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다고 소개하고 있다.

드러지게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결혼대상군 감소폭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Banerjee, 1990; Goldman et al., 1984), 이는 고학력 여성들이 자신과 비슷한 교육수준과 직업군에 중사하는 동질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장상수(1999)의 연구에 의하면 동질혼의 경향은 학력 수준에서 양 극단, 즉 대졸과 초졸 이하의 학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대졸학력에서 동질혼 경향이 강한 반면, 전문직 남성 미혼자의 수는 여성의 수에 비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여성의 결혼대상군 감소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에서는 26세 이상의 미혼 집단에서 10명의 대졸 여성 대비 4명의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고(Goldman et al., 1984), 같은 시대의 싱가포르의 연구에서도 33%의 대졸 여성이 상대방을 찾지 못하여 독신으로 남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Mydans, 1988).

이러한 결혼대상군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고학력, 전문직 미혼 여성 집단의 비자발적 만혼현상은 결혼을 사회적 교환으로 설명하는 교환이론에서 부분적으로 설명 되어 질 수 있다. 전통적 교환이론가들은 여성들의 경우, 아이출산, 살림 능력 그리고 신체적 매력이 주요 교환자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로 남자는 경제력, 교육수준 그리고 권력 등 다양한 교환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Anderson, 1994; Benokraitis, 1993).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시켰고, 이들의 자원을 증가시켰지만, 결혼 교환에서는 오히려 선택 가능한 상대방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Banergee, 1990; Benokraitis, 1993; Goldman et al, 1984). 그 이유로는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자원 보다는 건 강한 자손을 얻기 위한 연령, 외모, 그리고 임신 가능성과 같은 표현형적 (Phenotypic: 유전

자의 작용과 환경에 의해 외부에 나타나는 성질)특성에 더욱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Bunk et al., 2002; Gottschall, Martin, Quish & Rea, 2004). 전문직 여성들의 길어진 교육 연한과 직업준비 기간은 이들의 연령 증가, 외모의 노화, 임신가능성 자원의 감소와 정비례를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의 결혼 시장(Marriage Market)에서의 가치를 하락시키며, 배우자로 선택될 기회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고려하는 자원은 상대가 내 자식의 부모로서 다양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이다(Anderson, 1994; Ellis, 1992). 따라서 남성의 경우는 교육 연한이 증가하고 직업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결혼시장에서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길어진 직업 개발 연한 및 여성과 남성의 배우자 선택 조건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여성 전문 인력의 결혼 대상군의 감소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만혼은 그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서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었다. 즉,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전문 직업 개발을 함에 따라, 과거에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로부터 얻고자 했던 보상들(경제력 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남편과 더불어 가사노동의 책임과 양육을 나누는 배우자를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새로운 요구와 가정친화적인 가치관에 동의하는 남성이 매력적인 배우자감이며, 전통적인 교환방식에서와는 달리, 요즘 여성들은 동료애를 가진 남자, 애정적 표현을 잘하는 남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i & Kenrick, 2006; Maner et al., 2008).

최근 들어 미디어의 영향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 남녀 모두 신체적 매력에 큰 가치를 두게

하였는데(Hetsroni, 2000), 이러한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하여 줄어든 것이 아니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Li & Kenrick, 2006; Maner et al., 2008; Gustavsson, Jorgen & Uller, 2008). 실제로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조건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의 조건으로 1위가 성격, 2위가 사랑, 3위가 장래 가능성, 4위가 집안, 5위가 직업의 종류로 나타났고, 남자가 여자를 선택할 때의 조건으로 1위가 성격, 2위가 사랑, 3위가 외모로 나타났고, 직업의 종류는 10위로 나타나(함인희, 2001)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의 은기수의 연구 역시 한국인의 결혼은 남성은 경제적 능력에 여성은 연령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정석의 연구(2006)에서도 미혼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의 향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혼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취업상태보다는 독립가구 거주여부, 성과 혼전동거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결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오늘날 우리사회의 만혼 및 혼인 기피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의 증가와 여성의 전문직 진출 확대가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 및 결혼지연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녀 모두 교육수준의 증가와 교육연한의 확대가 만혼현상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전문직 진출 확대가 결혼지연과 연관이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미혼 전문직 집단의 결혼지연과 만혼에 대한 연구 노력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직 미혼남녀 집단의 결혼과 만혼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자의 만혼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포커스 그룹

본 연구의 자료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 수집되었다. 포커스 그룹은 집단 인터뷰의 일종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특정집단의 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두 명의 중재자(Moderator)가 적은 수의 개인들의 집단 토론을 이끄는 자료수집 방법이다(Auh, 2006). 일반적으로 50분에서 90분 정도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moderator는 개방형 질문지를 가지고 집단의 토론을 이끌게 되는데, 그 토론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제에 초점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게 된다(Auh, 2006). 상황에 따라서 포커스 그룹의 도입부에 도입설문(Entry Survey)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도입설문은 비슷한 내용을 사전에 물어봄으로써 참가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토론시간에 발언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의견까지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전문직 미혼남녀의 결혼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정보를 얻고자하며, 이들의 만혼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 남녀로 제한하였

〈표 1〉 인터뷰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연번	코드	성별	직업	연령	학력
1	여A	여	외국대사관공보관	40세	대졸
2	여B	여	특수교사	34세	대졸
3	여C	여	재정분석가	30세	대학원졸
4	여D	여	교사	32세	대졸
5	여E	여	연구원	28세	대학원졸
6	여F	여	공무원	28세	대학원졸
7	여G	여	회사원	29세	대졸
8	여H	여	은행관리자	39세	대졸
9	남A	남	변호사	36세	대졸
10	남B	남	교수	35세	대학원졸
11	남C	남	연구원	31세	대학원졸
12	남D	남	재정분석가	36세	대학원졸
13	남E	남	고급공무원	28세	대졸
14	남F	남	컨설턴트/교수	38세	대학원졸

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전문직, 준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업을 의미하며, 변호사, 의사, 공무원, 연구원, 교사, 교수 등이 포함된다. 연구 대상을 제한한 근거는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혼인 희망연령이 미혼 남성은 30대 초(31.8세), 여성은 30세 전후(29.7세)가 혼인희망연령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한 2005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0.9세로 여성 27.7세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평균 초혼연령대에 있는 미혼 남녀를 결혼지연에 관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프로토콜(Interview Protocol)을 개발하였다. 인터뷰 프로토콜은 도입부분에 연구에 대한 소개, 도입설문, 포커스 그룹 면접 수행 시 사용할 잠정적인 개방형 질문들, 사례비와 감사의 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편의적인 표집방법에 의해 모집되었으며, 자발적인 동의하에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요 제보자(Key Informant)

에 의해 소개를 받았고, 사전에 전화로 접촉하였다. 참가자들의 편의에 의해 포커스 그룹 면접 시간과 장소가 결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이었다. 2008년 9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서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각각 90분에서 120분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여성 전문가 집단은 8명이 참가하였고, 남성 집단의 경우 6명이 참가하여, 본 연구의 참가 인원은 총 14명의 성인 미혼남녀이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29세에서 40세까지이며, 공무원, 특수치료사, 은행원, 교수, 법관,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직의 종사자들이 참가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참가자의 연령 및 직업은 <표 1>과 같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한 명의 중재자(Moderator)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2명의 연구자가 참가하여 기록자의 역할을 하였다. 참가자들의 허락하에 면접조사 내용을 녹음하였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상황의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는 2명의 연구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후 녹취된

음성 파일은 전사자(scriptor)가 전사(Transcribe) 하였다. 전사 자료와 함께 인터뷰 현장기록 및 추후기록 등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 분석을 위한 기록 자료로 만들어졌다. 자료 분석은 개방코딩의 과정을 거쳐 축코딩 과정을 거쳤고, 이후 도출된 여러 개의 축들은 연합과 비교를 통하여 분석되어 몇 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축들의 관계는 연구자의 주관적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riangul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Auh, 2006).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다른 연구자와 논의되어지고 때로는 반대되는 증거를 찾는 노력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의 영향요인

연구결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 남녀들의 만혼에 대한 몇 가지 문화적 특성에 기초하는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이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 남녀들의 응답의 공통점은 **피상적**으로 모두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적령기에 대한 질문에 이들은 여성의 경우 28세에서 32세까지, 그리고 남성의 경우 32세에서 33세라고 응답하였다. 그 연령대를 결혼 적령기로 뽑은 이유로는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 특히 직업적 안정을 찾은 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주도적이었다. 즉, 참가자들 모두 언젠가는 결혼하기를 희망하였고, 인터뷰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는 직업개발의 중요성이었다.

1) 人倫之 大事를 앞선 우선순위 가치: 직업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결혼에 관한 전문직 여성과 남성의 대화 중, 공통적으로 떠오른 중요한 주제는 바로 직업의

개발 혹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투자였다. 직업개발을 위한 노력 혹은 투자는 이들 참가자들에게 있어 결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 보였다. 특히, 남성 전문직 참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들의 희망 혼인연령 및 실제 혼인에 대한 계획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직업 개발을 위한 투자가 등장하고 있었다. 아래 제시된 참가자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공부(박사학위) 때문에 시간이 늦어진 거죠. 다... 아무래도 (전문직남성 참가자 B)

그게 꼭 커리어개발이라는 말로 뭐... 직업(변호사)을 갖기 위해서 시간투자(사법고시 준비)를 한 것이고 그 동안엔 아무래도 부담되니까 늦춰진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서른 셋 넷 정도 제 기준으로 볼 때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 된 거고 (전문직남성 참가자 A)

본 연구에 참가한 남성 전문직 참가자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경험이나,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법조계 관련인의 경우 사법고시를 장기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장기간 교육이나 시험준비 등 자기개발에 투자한 시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중 비교적 연령이 적었던 31세 남자 연구원의 경우, 여자 친구가 있다면(현재 사귀는 여자 친구는 없다) 결혼하고 싶은 것이 본인의 마음이지만 '박사과정 유학이라도 다녀와서 몸값을 올린 후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여성참가자들의 경우, 남성참가자들과 비교하여 고학력자의 비중이 많지 않았다. "직업개발을 위하여 결혼이 희생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여성참가자들은 답변에서 그것이 주된 이유

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참가자들은 자신의 직업생활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경주해왔고, 이러한 노력들은 때로 결혼을 위한 전초 단계인 이성교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장시간의 근무 스케줄을 충실히 따랐다가, 일의 스케줄과 이성교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일을 선택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참가자들의 직장생활의 공통점은 “너무 바쁘다”³⁾라는 점이다. 아래에 제시된 한 금융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39세 전문직 여성의 지난 이야기는 직장생활로 너무도 바쁜 전문직 여성들이 이성 관계를 시작하는 것조차 부담되고 어려운 현실에 대한 극명한 예를 보여주어 참가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잘해 보려고, 여러 가지 [주변의 압력] 있기도 하고 저도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잘해보려고 나갔는데, 직장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 어느 때는 새벽 1-2시에 끝날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컨택을 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힘들고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다가도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여자가 주말에도 나가고 12시 1시에도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남자친구는] 몇 시에 끝나요? 하고 전화하고 이미 집에 와서 밥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지레 겁을 먹고 하다 보니까... 몇 개월에 한번 [소개팅] 들어와서, 잘해 보려고 안 되는데도 꾸미고 나갔지만, 그래서 첫 번에 말이 통하는 것 같아서 호감이 있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약 일주일 길면 한 달 만 지나면 손을 들고 다 이렇게 [끝나지요]. (전문직여성참가자 H).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참여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개인의 사

회적 삶(Public Sphere)이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 삶(Private Sphere)의 영역은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속도가 정체되어 있고(통계청, 2009), 특히 OECD 30개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면 OECD평균 64.7%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54.7%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OECD, 2009). 2008년을 기준으로 대졸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출산과 육아를 시작하는 30-34세에 크게 하락하는 M자형 곡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 인력활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김태홍 외, 2009). 이는 직장생활에서는 제도적으로 양성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나, 개별 가정의 생활은 직장여성에게 여전히 전통적인 주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중부담이 기혼 여성들의 직장생활 포기로 이어지고, 이를 지켜보는 미혼여성들은 직장생활과 병행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혼남성들의 경우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해 ‘지레 겁을 먹는 남성들’ 그리고 ‘한 달만 지나면 손을 드는 모습의 남성’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직장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이 종종 이들의 대화에 등장하였는데, 이 또한 전문직 여성들의 결혼 의향을 낮추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부정적 간섭에 대해서 29세의 회사원인 한 참가자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3) 이것은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남성의 바쁨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들잖아요 저희 20대 결혼적령기가 될 때 면접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할 거냐 애는 언제쯤 가질 것인지 이런 걸 자꾸 물어보게 되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군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뭐 직업을 가지더라도 안정되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다음에 결혼하거나 애를 가져야 된다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좀... (전문직여성참가자 G).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미혼 남녀들은 본인들이 설정한 혼인 적령기에(28세에서 32세) 정작 자신들은 소위, “몸값을 높이기 위한” 직업개발 혹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직업개발에 대한 투자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전문직을 갖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들의 만혼현상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바쁜 전문직 여성들의 직장생활 몰두는 이성교제 단계에서부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전문직 미혼남성들의 인터뷰에서 남성들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직장일로 인해 매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바쁜 생활이 연애,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결혼생활에서의 부부의 역할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결혼대상군에서 이들 바쁜 여성들의 가치에 대한 평가 절하와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평가 절하 현상은 전문직 미혼 여성과 남성의 이성교제의 기회에서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은밀한 차별로 우리사회에 존재하게 된다.

2) 貧益貧 富益富: 남녀간 이성교제 기회의 불균형

결혼지연 요인으로 커리어의 개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노력 등이 전문직 미혼남녀

집단에 공통적으로 떠오른 주제였던 반면, 결혼을 위한 첫 단계인 이성교제 경험은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이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여성 전문가 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공을 경험하는 반면, 이성교제 기회의 부족을 가장 큰 결혼지연 요인으로 꼽았다. 남성전문가 집단의 경우 기회는 많으나, 적당한 대상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Banergee, 1990; Benokraitis, 1993; Goldman et al, 198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성교제의 기회 측면에서 여성전문가 집단은 기회의 감소를 지적한 반면에, 남성전문가 집단은 기회의 확대를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직업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 결과는 결혼시장에서 남성참가자들의 가치를 상승시켰지만, 여성참가자들의 가치 상승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았다 예로, 참가한 전문직 남성들은 이전과 비교해서 이성교제 기회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고, 현재 자신들의 결혼 결정의 어려움은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간섭과 같은 외적영향으로 인해 결혼대상을 찾는 범위가 좁아진 것이라고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집안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음 2년 전에 벌써 했겠죠 딱 맞는 사람이 없어서 겠죠 상황도 상황이고. 결혼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그럴만한 사람을 못 만나서. (전문직남성참가자 B)

저도 집안 반대도 있었고 이것저것 성격차이다 뭐 다른 이유로 헤어진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공부한다고 그게 켈로 겠겠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제일 바쁠 때 헤어진 적이 많아요 그때는 전화도 안받고 다른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것도 내가 시간도 넉넉하고 결혼 해야겠다 생각하면 결혼

했어야 했는데, 다 그런 것 땀에 미워진 것 같아요
(전문직남성참가자 F)

대부분의 전문직 남성 참가자들은 이전에도 사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재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이성교제 기회의 부족을 겪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이 결혼을 하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로 ‘내가 결혼할 바로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한 점, 혹은 ‘이제는 장가를 가야 할 때’라고 인지하지 못한 점 바울 들었다. 비교적 고수입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참가자들의 경제적 능력은 현재 배우자감으로서 매우 매력주된 자원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어떤 참가자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이성교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5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를 여성들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경제력을 뿔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업의 종사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결혼시장 (Marriage Market)에서 남성참가자들의 교환가치를 상승시킨 반면에, 여성참가자들의 경우 가치상승에 대한 증거는 미미하였다. 오히려, 선행연구(Bunk et al., 2002; Gottschall et al., 200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증가로 인한 신체적 매력의 감소와 출산력 감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들 전문직 여성들의 교환가치를 절하하였고, 이는 이성교제 기회의 감소라는 현상과 연관성이 있었다. 아래에서는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여성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 두 참가자의 상당한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험의 공통점은 결혼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과 기회의 부족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그렇고 너무 어린 사람도 그렇고 같은 나이 연령대가 좋긴 한데 그 쪽 [남자쪽]

에서도 우리 나이쯤 되면 [서른 초반의 상대방여자를] 싫어해요. 우리는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이나 우리와 비슷한 동등한 사람을 원하지 아주 나이 많은 사람 원하지 않거든요 (전문직여성 참가자 C)

나이를 먹으면서 기대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보면. 내가 막 결혼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어떤 나이를 지나면 그냥 정말 내 생활 편하고 직장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생활에 안주하게 된다고 할까, 어쩌면 정말 나의 기준치가 아닌 사람이면 만남을 별로 뭐랄까 배제를 한다고 해야 하나, 노력을 좀 덜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있는 게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아까 [다른 참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소멸의 기회가 없잖아요 무슨 모임이나 뭐 그런 것도 특히 20대가 많고 30대 넘어가면서 특히 30중반 넘어가면 거의 뭐 [전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적을 뿐더러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과 점점 갭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전문직여성참가자 A)

이러한 기회감소와 더불어 전문직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는 상업적 매칭서비스 경험에서 매우 뚜렷이 나타난다. 이성교제 기회 부족이 전문직 여성참가자들에게 중요한 현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결혼정보회사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태와 인식을 탐문하였다. 결혼정보회사 이용결과 역시 남녀 집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성 참가자들 대부분이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토로한 반면에, 남성 참가자들은 거부감과 찬성의 양분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아래의 내용은 토론에 참가한 세 명의 참가자의 결혼정보회사 이용경험 혹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정보회사는 아닌데 [종교 기관에서 유사 결혼정보회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해봤는데 딱 두 번 만나고 안 했어요 정말 그건 그냥 선으로 소개해주는 것보다 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횡수를 채우고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때가 29살 이었나 30이었나. 그때 그렇게 한두 번 해보고... 근데 그렇게 만나는 게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전문직 여성참가자 A)

창피하기도하고... 물어 보았어요 친구에게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하고 물어봤더니 다들 싫대요 이상한 사람들 있다고 그리고 그거 해본 사람 의견을 들었어요 친구가 한번 해 본 적 있대요 해본 적은 있는데 근데 썩... 그냥 별로라고 한번 만나고 말았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후시나 모르니까 해볼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많아요, 그때 어렸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32-33살 정도 그때는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 내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해볼까 말까 하다가 고민 많이 해봤어요 가입해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보기도 하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안 했죠 (전문직여성참가자 H)

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치자료를 가지고 그 남자를 표시해서 이 사람이 나랑 맞을 거라고 계량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따져서 그 사람을 저한테 소개해주는 건데, 음...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든다면 약간 혹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양면적일 수 있는 게 상대방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수치화로 보지만 저 자신도 그렇게 상품화가 되고 싶지 않은 게 스스로에 그 느낌이잖아요... 비록 상대방은 이렇게 이렇게 모두 단계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 본다고 할지라도 저 자신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안 할거 같아요 (전문직여성참가자 E)

30대 후반인 참가자A의 예와 같이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를 경험한 여성 참가자들은 몇 가지 불편함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로 높은 가입비와 함께 소개비를 여성들이 내야하는 점, 둘째로 원하는 상대방을 충분히 소개 받지 못한 점, 셋째로 제한된 소개의 기회 등을 꼽으면서 상업화된 매칭서비스에 대한 강한 불만족을 토로하였다. 실제 결혼정보회사들의 서비스 이용 약관⁴⁾은 참가자 A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직접 이용한 경험이 없었던 30대 후반 참가자H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도를 하지 않았고, 20대 후반 참가자E는 개인을 등급화 하는 이성교제 과정의 상품화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업화된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혹은 반감이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의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담론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전문직 남성참가자들은 결혼정보회사 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자신이 직업적으로 성공할수록 결혼정보회사의 등급에서 우위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한 예로, 남성 전문가집단의 경우 상업적 결혼정보회사에서 본인이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번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유연애를 통하여 반드시 적절한 대상자를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혼정보회사를 통하면 최소한 자신이나 부모 또는 주변에서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4) 예로, A결혼정보회사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노블레스회원의 경우 여성은 가입비 240만원인 반면에 남성은 그 자격에 따라 159만원까지 가입비가 내려간다. 만남의 서비스 역시 여성의 경우 4-7회로 제한이 된다.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제 주변에 친구가 이용하는데 토요일마다 만나러 가는 친구가 있는데. 어차피 나이가 들수록 만남기회도 적어지고 연애를 20대같이 하는 것도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진짜로 부모님 생각 맞추고 여러 가지 조건 맞춰가지고 만나서 좋아지면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전문직남성참가자 A)

나쁘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차피 결혼정보회사 이용도 이십 대 때 했던 소개팅이나 주변사람이 소개시켜주는 거나 어떻게 사람 만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굳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해서 다른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것 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은 없고 한 가지 수단이라 생각해요 (전문직남성참가자 D)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이 결혼 했고요 또 잘 살고 있어요 실제로 가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데요? 오히려 사귀어서 결혼한 친구가 이혼을 하고 그러던데. (전문직남성참가자 B)

여성참가자들과는 달리, 비교적 상업적 결혼정보회사의 등급에서 우위에 있는 남성참가자들의 경우, 실제로 그들의 주변에서 결혼정보회사의 서비스를 통해서 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보았던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 남성들에게 상업적 매칭서비스는 자유연애를 대신하는 또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문직 미혼 남녀들의 삶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이성교제 기회의 이중적 구조는 상업적 매칭서비스를 통해 더욱더 극명하게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 적령기를 넘긴 전문직 미혼 남녀의 결혼 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이성교제 기회의 불평등과 더불어 부부역할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치관은 전문직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에 대한 적극성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요소로 부각되었

다. 결과적으로 남녀 개인의 자원에 대한 이중적 잣대의 적용은 여성들의 자원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킴으로써 결혼의 가능성을 더욱더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新傳統主義的 價值觀의 영향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개인적 삶인 결혼생활 그리고 부부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전통주의적(新傳統主義的) 가치관을 표방하고 있었다. 신전통주의적 가치관은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가정에서도 가정의 관리자로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Stone, 2008).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결혼 이후 직장생활에 대한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는데, 남녀 집단 모두 본인의 결혼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었고, 남성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생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직업적 성공에 대한 열망과 더불어 전문직 미혼 여성참가자들은 매우 높은 모성애를 표현하였는데 엄마가 되고 싶어서 결혼을 희망한다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성에 대한 본능과 직업적 성공에 대한 열망 사이에는 갈등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 예로, 현재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한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가까운 장래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깐 전혀 [장기간 육아 휴직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 데요 회사에서 나를 안 받아 주거나 책상이 없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은 안하는 데요 [장기 휴직 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지요 [결혼 후] 내가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안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벌써 한쪽을 놓아 버리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전문직여성참가자 E)

전문직 미혼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출산 후 복직이 자유로운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출산으로 인한 휴직제도의 혜택에 대해서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출산 후 복직이나 재취업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E의 예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장기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직업적으로도 태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내재적 가치관의 갈등은 전문직 여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가 진행 될 당시의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세미나’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여성들의 92%가 직장경험을 하였으나 그 절반 이상이 결혼이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뉴시스통신사, 2008). 같은 조사에서 여성재취업의 장애요인은 가사 및 육아 등 가정문제(43.7%), 나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33%), 직무능력 및 전문기술 부족(29.2%)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 참가한 전문직여성들의 우려를 뒷받침 하고 있다.

즉, 직장에서의 임무 수행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육아 및 가사를 함께 책임져야하는 불합리한 규칙이 여성에게 적용되는 신전통주의적 가치관하에서는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자신의 직업적 성공을 열망하는 전문직 미혼여성들이 이러한 내재적 가치관의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현상인 것이다. 실제로 많은 참가자들이 장래에 발생할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에 대한 걱정을 피력하였다. 20대에 결혼하여 육아에 시달리는 전업주부나 직장생활을 하는 언니들이 있는 참가자B와 D

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다.

저희 언니가 서른 후반인데 셋째를 가졌어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정말 청춘을 육아에 다 보내는 거예요 본인의 일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라는 맘이 들어요 (전문직여성참가자 D)

저도 제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이까지 낳고 그러면 제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막연하게 많이 들어서 미루다가 헤어진 경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못 만났어요 안 만나게 되고 별로 뭐 그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방학도 있고 일찍 퇴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으면 제가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고 제 일도 놓고 싶지 않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결정 못하겠구요 닥치면 어떻게 하겠지만 지금은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중이에요... (전문직여성참가자 B)

전문직 여성참가자D의 경우 현재 2년 간 사권 사람이 있지만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언니의 삶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습이 본인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신전통주의적 사고는 남성참가자들에게도 주도적인 가치관으로 발견되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었다. 즉, 직장 업무에 대한 몰입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있었고 반면에, 가사와 육아로부터는 매우 자유로운 역할로 자신들

5) 2008년 8월에서 9월까지 충북지역의 각종 여성 관련시설의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 668명을 대상으로 충북고용포럼과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과거 직장경험이 있는 경우 92.1%(609명), 한 번도 직장경험이 없는 경우가 7.9%(52명)로 나타났다. 퇴직이유는 27.1%(176명)가 출산 및 육아를 끝냈고 결혼이 24%(156명)로 조사되었다.

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량이 이성교제의 방해 요인이었던 여성 참가자들과는 달리 전문직 남성 참가자들은 그들의 데이트 상대가 전문인으로서의 남성 자신의 직업적 특성을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Moderator: 업무량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해를 해 주시나요?

전문직남성참가자 A와 D: (동시에) 저 같은 경우는 의례 바쁘려니 해요

즉,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것은 여성 전문직 참가자들과 동일한 현실이지만, 생계책임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은 그들의 직업적 몰입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다. 반면, 앞서 언급된 여성참가자 B와 D 사례에서 투영된 바와 같이 육아와 가사노동의 책임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은 데이트 과정과 결혼생활에서 여성들의 직업 몰입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녀역할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배우자의 직업에 대한 선호와 육아의 책임에 대한 전문직 남성참가자들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육아를 담당하는 게[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가능하면 직업을 갖더라도 시간적으로 유도리가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만났던 애는 미대를 나왔는데 애들을 가르치는데 집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도 3-400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충분히 육아도 가능하고 저는 결혼 전에는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가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거 별로 선호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 같아요 (전문직남성 참가자 C)

(결혼 후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직남성참가자 F: 그런 소리나 하나까 결혼 못하지 뭐 그런 소리밖에 못들을 테니까... 물론 여자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맞벌이를 하면 글썽 저는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비율] 4[남편]: 6[아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중재자: 본인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겠네요, 4:6이면

전문직남성참가자 F: 아-(본인의 솔직한 마음)이면 그러면 2:8 하하하

즉,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본인의 미래의 배우자가 가사 및 육아 등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직업을 갖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전업 전문직 여성들 보다는 임시직이거나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된 여성들의 직업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전문직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전문직 남성들과 만나고 싶다고 피력하여 이들이 추구하는 결혼이 동질혼 혹은 상승혼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그리는 결혼의 그림과는 달리, 신전통주의적 가치관하의 전문직 미혼남성들의 결혼과 부부의 역할기대는 *너무도 업무에 바쁜* 전문직 여성들이 결혼대상군에서 고려되어 질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좁히고 있었다.

V. 결론

- 자발적 대 비자발적 만혼현상

본 연구는 전문직 미혼 남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만혼현상에 대한 전문직의 문화적 특성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던 이들 전문직 미혼남녀의 인식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직업개발에 대한 강한 열

망이었다. 이들 집단의 직업개발에 대한 가치 및 투자는 이들 삶의 주기적 계획(life cycle plan)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발적 만혼현상으로 귀착된다. 이들 남녀 참가자들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특정한 혼인 적령기로 삶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다. 결혼은 '자신이 준비 되었을 때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결혼을 개인의 자발적 결정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강한 직업개발의 열망은 일반적인 결혼적령기의 결혼보다는 직업개발을 위한 교육 및 시간의 투자를 우선 순위로 두게 하여, 이들 집단에 있어서 직업개발은 결혼보다 앞선 우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직 남녀 참가자들의 가치관적 특성은 이소영·황선진(2003)과 김경원·김태현(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이들 전문직 남녀의 삶에 공통적인 단어는 '너무도 바쁜 업무'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과도한 업무는 이들에게 결혼의 전 단계인 이성교제를 위한 에너지, 시간 등과 같은 자원의 고갈을 유발하여 이성교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여성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컸는데, 일례로 이들 전문직 참가자들은 너무 바쁜 업무로 인한 이성교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으며, 이는 과도한 업무가 전문직 여성들의 비자발적인 만혼을 초래하는 요인임이 나타났다. 동시에 이성교제와 직장생활의 갈등 발생 시 전문직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자발적인 만혼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었다. 반면, 남성 참가자들의 경우 본인의 업무로 인해 바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자신의 이성교제 상대도 이해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전문직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바쁜 업무로 인한 이성교제의 어려움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장시간의 근무는 이성교제에

필요한 시간 및 체력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Benokraitis(1993)와 Shearer(1990)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나아가, 어떻게 사회적 맥락에 의하여 남성과 여성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가를 역동적으로 보여주었다.

다른 측면의 전문직 남성과 여성 집단의 뚜렷한 차이는 배우자로서의 자원의 변동 과정에 나타나고 있었다.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됨에 따라 남성들의 배우자로서의 자원의 가치는 상승하는 반면에, 여성들의 가치는 동일하거나 혹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이중적 잣대에 의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능력 그리고 안정된 직업이 배우자 선택의 매력 요인으로 뽑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뛰어난 외모, 젊은 나이(출산력) 등이 배우자 선택의 매력 요인으로 뽑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결혼교환이론에 기초한 선행연구들(Anderson, 1994; Banergee, 1990; Benokraitis, 1993; Bunk et al., 2002; Goldman et al., 1984; Gottschall et al., 2004)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원의 변동은 이성교제의 기회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여, 남성의 경우 직업적으로 성공함에 따라 이성교제의 기회는 증가하여 자발적 만혼의 현상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여성은 이성교제 기회의 감소로 인하여 비자발적 만혼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2008년을 살아가던 전문직 미혼 남녀 참가자들은 여전히 신전통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여성과 남성에게 대해서 이중적 성역할을 부여하는 신전통주의적 가치관은 미래의 결혼생활에서의 일 가정 양립의 책임을 여성에게 부여하여 이들의 자발적 만혼을 부추기고 있었다. 주변의 직장 동료 그리고 손위의 자매의 삶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는 이들 전문직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고 있었다. 또한 남성 참가자들 역시 불평등한 부부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배우자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미래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위의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과도한 업무가 해결될 수 있는 직장 문화 개선과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 너무도 바쁜 업무 혹은 장시간의 근무시간은 이들 전문직 미혼 남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특성이었고, 또한 전문직 남성과 여성의 자원에 대한 이중적 평가는 이성교제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직 여성은 이성교제 자체가 어려운 과제로 변질되고, 결국은 자발적 만혼에서 비자발적 만혼으로 옮겨가게 된다. 아울러, 참가한 다수의 참가한 이 자신들과 비슷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 기회감소의 문제점과 동질혼에 대한 이들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중재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었다. 따라서 이 이 자연스럽게 순수한 취미활동 및 동호회 활동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성교제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중재가 모색되어야 한다. 결혼에 대한 교육 기회에 대해 남녀 참가자들은 모두 권제의반응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이성교제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성평등주의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결혼 예비교육의 확대 및 사회적 캠페인의 제안이다. Melton과 Lindsey(1987)의 연구에서

부터 최근 Maner와 그 동료들(2008)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이 현대사회의 매력적인 결혼 배우자로 지목받고 있음을 보고한다. 본 연구의 전문직 여성참가자들을 통해 여성들이 신전통주의적 결혼관으로 인하여 스스로에게 직장생활과 육아 및 가사노동에 대한 이중고 또는 전적인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전통주의적 가치관이 전문직 여성들의 결혼지연과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가진 남성이 결혼의 매력적인 배우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확립은 잠재적 만혼의 대상인 전문직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양성평등적 결혼 예비교육의 확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결혼의 잠재적 대상이 되는 전문직 남성 참가자들 대부분 신전통주의적 가치관에 의한 이분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잘못된 관념은 미래의 건강한 결혼생활에 방해 요인이 된다. 양성평등적 가족가치관의 확립은 사회나 직장의 제도적인 정책과 함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정 내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확립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생활에 대한 이해와 일 가정 균형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실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복잡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의 장애요인의 발견 및 제거 보다는 전문직 미혼남녀의 특수한 문화를 점진적으로 변화 혹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추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원, 김태현(2005). 질적 연구를 통한 독신동기 요인과 남녀차이. *대한가정학회지* 43(6), 61-79.
- 2) 김두섭(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 3)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4) 김태홍, 유희정, 강민정, 전용일(2009).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5) 뉴시스통신사(2008. 11. 14). 충북 여성 92% 직장경험, 결혼 출산 퇴직 51%. Retrieved on March 30, 2010 from <http://news.nate.com/view/20081104n16013>.
- 6)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회지* 18(1), 89-117.
- 7) 이삼식(2006). 2005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8) 이소영, 황선진(2003). 20 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6, 267-281.
- 9) 이수진(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10) 장상수(1999). 한국사회의 결혼이동-교육수준별 동질혼 유형과 그 변화. *한국사회학* 33(여름), 417-448.
- 11) 장혜경(2007).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 통계청(2009). *경제활동인구연보*.
- 13) Andersson, M.(1994). *Sexual selectio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4) Auh, S.(2006). Semi-annual report of Iowa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Reported to Administration on Aging, Center for Medicaid and Medicare, and Lewin Group. Baltimore. MD : Lewin Group.
- 15) Banerjee, S.(1990). The evolution of dating: Singles are more serious, thoughtful in their search. *Baltimore Sun*, Sept. 11, 1D, 8D.
- 16) Benokraitis, N. V.(1993). *Marriage and families: 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 Englewood. NJ : Prentice Hall.
- 17) Bunk, B. P., Dijkstra, P., Fetchenhauer, D., & Kenrick, D. T.(2002).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criteria for various involvement levels. *Personal relationships* 9, 271-278.
- 18) Ellis, B. J.(1992). The evolution of sexual attraction: evaluation mechanisms in women. In Barkow, J. H., Cosmides, L., & Tooby, J. (Eds.). *The adapted mind*, 267-288.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19) Goldman, N., Westoff, C., & Hammerslough, C.(1984). Demography of the marriage market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Index* 50(1), 5-25.
- 20) Gottschall, J., Martin, J., Quish, H., & Rea, J.(2004). Sex differences in mate choice criteria are reflected in folktales from around the world and in historical european literatur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5, 102-112.
- 21) Gustavsson, L., Jorgen, I.J., & Uller, T. (2008). Mixed support for sexual selection theories of mate preferences in the Swedish population. *Evolutionary Psychology* 6, 575-585.
- 22) Hetsroni, A. (2000). Choosing a mate in television dating games: The influence of setting, culture, and gender. *Sex Roles* 42

- (1/2), 83-106.
- 23) Li, N. P., & Kenrick, D. T.(2006).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references and feminist attitudes regarding marital relations. *Evolutionary and Human Behavior* 25, 327-335.
- 24) Maner, J. K., Rouby, D. A., & Gonzaga, G. C.(2008). Automatic inattention to attractive alternatives: the evolved psychology of relationship maintenanc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9, 343-349.
- 25) Melton, W. & Lindsey, L. L.(1987). Instrumental and expressive values in mate selection among college students revisited: Feminism, love and economic necessity. *Proceeding of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 Sociological Society* (April).
- 26) Mydans, S.(1988). How to marry up, and avoid the frogs and nerds. *New York Times* July 11, A4.
- 27) OECD(2009). *Employment Outlook*.
- 28) Patterson, J., & Kim, P.(1991). *The day America told the truth: What people really believe about everything that really matter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29) Roper, O.(1990). *The 1990 Virginia Slims opinion poll: A 20-year perspective of women's issues*. Storrs : University of Connecticut.
- 30) Shearer, L.(1990). Too much television = too much fat. *Parade Magazine* May 27, 13.
- 31) Surra, C. A.(1991).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In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looking back* (ed. A. Booth), 54-75. Minneapolis: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투 고 일 : 2010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10일